

日韓新時代.. 未来へのコラボレーション  
韓日新時代..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



JAPAN FOUNDATION

www.jpf.or.kr

- 발 행 일본국제교류기금
- 디자인 디당디자인
- 인 쇄 서울문화인쇄(주)

© The Japan Foundation 2011

• 주 최 일본국제교류기금 · 주한일본대사관

•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 한일문화교류회의 · 서울재팬클럽



Contents

Schedule

사업종류 事業種類	목차 目次	사업명칭 事業名稱	실시장소 実施場所	2010. 12	2011. 1	2011. 2	2011. 3
전시 展示	04-05	망가·일본만화의 새로운 표현 전 新次元: マンガ表現の現在 展	아트선재센터(서울) 아트선재센터(ソウル)	●		● 12. 4 - 2. 13	
	06-07	한일학생패키지디자인콘테스트 우수작품전 日韓学生パッケージデザインコンテスト優秀作品展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센터 갤러리(서울) 祥明大学校 芸術・デザインセンターギャラリー(ソウル)		●	● 1. 18 - 2. 11	
	08-09	和 - 일본 현대 디자인과 조화의 정신 전 WA-現代日本のデザインと調和の精神 展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서울) コリア・ファウンデーション文化センター(ソウル)			●	● 2. 12 - 3. 19
	10-11	서울스퀘어미디어캔버스 K-J 공동제작 프로젝트 ソウルスクエア・メディアキャンパス・J-Kコラボレーション・プロジェクト	서울스퀘어미디어캔버스(서울) ソウルスクエア・メディアキャンパス(ソウル)			● 2. 8 - 3. 31	●
공연 公演	12-13	한일전통음악교류연주회 와(和) 日韓伝統音楽交流演奏会 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서울) 在韓日本大使館公報文化院(ソウル)		● 1. 15		
	14-15	티코보 한국순회 Eco 콘서트 ティコボ韓国巡回 Ecoコンサート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순회 ソウル、大邱、釜山、光州、濟州巡回			● 2. 8 - 2. 16	
	16-17	한일전통가무악축제 日韓伝統歌舞楽祭	국립국악원(서울), 국립부산국악원(부산) 国立国楽院(ソウル)、国立釜山国楽院(釜山)			● 2. 22 - 2. 25	
영화 映画	18-19	야끼니꾸드래곤 공연 焼肉ドラゴン 公演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서울) 芸術の殿堂 土月劇場(ソウル)				● 3. 9 - 3. 20
	20-21	한일영화제 日韓映画祭	아트하우스 모모(서울) アートハウスMOMO(ソウル)				● 3. 10 - 3. 16
청소년교육 青少年教育	22-23	한일 블래스트비트 프로젝트 日韓ブラストビート・プロジェクト	서울, 도쿄 ソウル、東京			● 2. 13 ● 2. 20	● 3. 19 ● 3. 22 ●
심포지엄 シンポジウム	24-25	2011 일본음악정보센터(JMIC) 심포지엄 2011 日本音楽情報センター(JMIC)シンポジウム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서울) 在韓日本大使館公報文化院(ソウル)			● 2. 24	
	26-27	한일출판교류 심포지엄 日韓出版交流シンポジウム	교보컨벤션홀(서울) 教保コンベンションホール(ソウル)				● 3. 11
	28-29	한일다문화도시 세미나 日韓多文化共生都市セミナ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장(서울) ソウル中央郵便局国際会議場(ソウル)				● 3. 16
JAPAN DAY ジャパンデイ	30-31	수원 JAPAN DAY 水原ジャパンデイ	수원화성박물관, 아주대학교(수원) 水原華城博物館、亜州大学校(水原)				● 3. 10 - 3. 20

\*문의: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お問い合わせ: 国際交流基金ソウル日本文化センター  
www.jpfr.or.kr Tel. 02-397-2820



오구라 가즈오(小倉 和夫)  
일본국제교류기금 이사장



무토 마사토시(武藤 正敏)  
주대한민국일본국 특명전권대사

일본국제교류기금(The Japan Foundation)은 한일 정부의 지원과 협력 아래, 「韓日新時代 :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를 테마로 일련의 한일문화교류 이벤트를 서울을 포함한 한국의 주요도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획은 이름 그대로 미래지향을 기조로 하여 한일 국민이 공동으로 문화사업을 기획, 실시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한일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손을 맞잡고 같은 목표를 향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근거한 기획입니다.

이 일련의 이벤트에는 한국과 일본의 전통예능공연, 디자인과 만화관련 전시회, 심포지엄, 한일관련 영화상영, 폐자재를 활용한 악기연주인 에코콘서트, 서울스퀘어 빌딩의 거대한 벽면에 투영되는 미디어아트작품 전시, 한일대학생이 모의회사를 설립하여 스스로 기획한 라이브이벤트 수익으로 사회공헌단체에 기부하는 블래스트비트 프로젝트, 다문화공생사회를 생각해 보는 심포지엄 등,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와 사회복지문제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일관계는 양국 국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더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그 만큼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공동으로 공헌할 수 있는 한일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양국 국민은 각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동작업에 종사하는 정신을 강화해야 합니다. 금번 일련의 이벤트가 이를 위한 일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번의 사업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업을 시작으로 새로운 싹을 틔우고, 또한 성장 중의 수목이 크게 자라나 우호의 숲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韓日新時代 :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가 일한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신년 초에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8월에 부임한 이래로 스스로 지난 100년의 마지막 일본대사이자 새로운 100년을 맞는 첫 일본대사이며, 새로운 100년에 일한 신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일한의 가교가 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100년은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쟁과 협력을 추진해가는 시대, 양국이 아시아 속에서 협력의 중핵이 되는 시대, 그리고 서로에게 배우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한의 협력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서울에서 G20정상회의, 요코하마(横浜)에서 APEC정상회의가 연달아 개최되어 시너지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개발원조에서는 일본이 오랫동안 정부개발원조(ODA)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만, 근래 한국도 ODA의 지원국이 되어 ODA의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면에서 일본은 기후변화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2년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주최를 제안했습니다.

경제면에서는, 양국의 경제수준이 거의 동등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경제관계는 선진국과 같은 수평분업의 협력관계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보장면에서 일본은 지금까지 핵 비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한국은 2012년에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문화면에서도 일한 양국에서 드라마, 영화,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한 공동제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한류', 한국에서의 '일류'는 일한 양국 국민이 국경을 못 느낄 정도로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이 「韓日新時代 :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종합문화 소개사업이 개최되어, 음악, 연극, 영화,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일한 공동작업이 한국의 주요도시에서 소개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열리는 일련의 행사를 통해서 일한의 문화교류에 있어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 되고 앞으로 미래를 향한 일한의 공동작업이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韓日新時代 :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의 개최를 위해 수고하신 일본국제교류기금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슈가 슈가 룬〉

新次元…マンガ表現の現在展  
**망가 : 일본만화의 새로운 표현전**

**망가 : 일본만화의 새로운 표현 전**

‘망가’ (Manga, 일본만화)는 2000년 이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며 독자층을 넓혀가고 있는 대표적인 시각매체이다. 망가는 동시대 사회 이슈들을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타 영역으로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표적인 아홉 명의 일본 망가 작가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만화가 가지는 예술적인 가능성과 소통 수단으로서의 매체적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전시는 일본, 한국, 그리고 필리핀의 미술관이 협력하여 기획하였고 각 국가에서 차례로 개최됩니다.

망가전은 일본과 기타 여러 나라에서 번역된 만화를 중심으로 미디어 믹스, 웹툰, 도안의 실험 등, 최근 10여 년간 작품의 발표 형식과 내용의 변화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작품들로 구성했습니다. 전시작품으로는 〈소라닌〉, 〈슈가 슈가 룬〉, 〈해수의 아이〉, 〈역에서 5분〉, 〈센넨화보〉, 〈넘버 파이브〉, 〈노다메 칸타빌레〉, 〈벡〉, 〈신만이 아는 세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1년 1월 20일 아트선재센터에서 「만화를 문화사회학적으로 읽는 방법」이라는 테마로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일본의 만화에서 감상하는 만화토.  
 케헨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는 전시

전시기간	2010. 12. 4(토) ~ 2011. 2. 13(일) 11:00 ~ 19:00 (월 : 휴관)
• 전시장소:	아트선재센터
• 참여작가:	아사노 이니오, 안노 모요코, 이가라시 다이스케, 구라모치 후사코, 교 마치코, 마쓰모토 타이오, 니노미야 토모코, 해롤드 사쿠이시, 와카키 타미키
• 공동주최:	아트선재센터
• 기 획:	SAMUSO, 일본국제교류기금
• 협 력:	미토예술관 현대미술센터
• 심포지엄 제목:	‘일본만화의 새로운 표현’을 통해 문화사회학적으로 만화읽기
• 일 시:	1월 20일 15:00 ~ 20:00
• 발 표 자:	이토 고, 사이토 다마키, 최흠, 손상익
• 영화상영:	‘BECK’



소라닌

Solanin 2005-2006  
 © Asano Inio/ Shogakukan Inc.,  
 Weekly Young Sunday  
 • 아사노 이니오 Asano Inio



역에서 5분

Five Minutes from the Station 2007-  
 © Kuramochi Fusako/ SHUEISHA Inc.,  
 Chorus  
 • 구라모치 후사코 Kuramochi Fusako



노다메 칸타빌레

Nodame Cantabile 2001-  
 © Ninomiya Tomoko/ Kodansha Ltd.  
 • 니노미야 토모코 Ninomiya Tomoko



슈가 슈가 룬

Sugar Sugar Rune 2003-2007  
 © Anno Moyoco/ Kodansha Ltd.  
 • 안노 모요코 Anno Moyoco



센넨 화보

Sennen Gaho 2004  
 © Kyo Machiko  
 • 교 마치코 Kyo Machiko



벡

BECK 1999-2008  
 © Harold Sakuishi/ Kodansha Ltd.  
 • 해롤드 사쿠이시 Harold Sakuishi



해수의 아이

Children of the Sea 2006-  
 © Igarashi Daisuke / Shogakukan Inc.,  
 • 이가라시 다이스케 Igarashi Daisuke



넘버 파이브

Number Five 2000-2005  
 © Matsumoto Taiyo/Shogakukan Inc.,  
 IKKI  
 • 마쓰모토 타이오 Matsumoto Tai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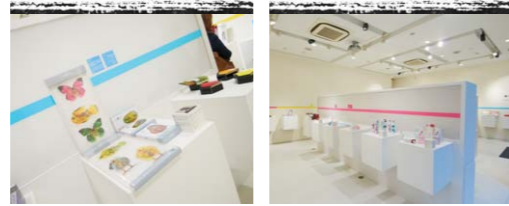


신만이 아는 세계

The World God Only Knows 2008-  
 © Wakaki Tamiki/ Shogakukan Inc.,  
 Weekly Shonen Sunday  
 • 와카키 타미키 Wakaki Tamiki



展示



한일학생패키지디자인 콘테스트 우수 작품전

일본국제교류기금과 한일학생패키지디자인교류프로젝트 실시위원회는 한일 패키지 디자인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의 「인간 친화적인 창작활동=장인」의 힘을 기르기 위하여 양국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일학생패키지디자인콘테스트(Happy Cube Award)】를 개최하였습니다.

양국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번 콘테스트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총560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이들 작품 중, 부문별(과자부문/음료부문/화장품·토일레트리부문)로 그랑프리 등, 입상작이 선정되었습니다.

콘테스트 관련 프로젝트로서 한일의 저명한 패키지디자이너를 초빙하여 양국의 패키지디자인계의 현황과 미래의 비전을 모색한 「디자인포럼(12/11)」이 일본에서 실시되었고, 입상·입선작품48점의 모형을 소개하는 「수상·입선작품전」을 일본(12/11~12/19 종료)과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전시기간 2011. 1. 18(화) ~ 2. 11(금) 11:00 ~ 19:00  
\* 설 연휴 휴관(2.2 ~ 2.4)

• 전시장소 :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센터 갤러리

日韓学生パッケージデザインコンテスト優秀作品展  
한일학생패키지디자인 콘테스트 우수 작품전





Fukunishiki Barrel / 1993  
Designer: Issay Kitagawa (GRAPH)  
Company: Fukunishiki Co., Ltd.  
©1993 Issay Kitagawa @GRAPH



AKARI 1AT/ 1952  
Designer: Isamu Noguchi  
Company: OZEKI&Co.,Ltd.  
©OZEKI&Co.,Ltd.



PINO/ 2001  
Designer: Tatsuya Matsui  
Company: ZMP INC.  
©2008 ZMP INC.



Taketlery/ 1999  
Designer: Takashi Ashitomi  
Company: Haruo Kai  
©Seiji himeno

WA | 現代日本のデザインと調和の精神展  
和-일본현대 디자인과 조화의 정신 전

和-일본현대 디자인과 조화의 정신 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본 디자인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디자이너와 디자인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될 뿐 아니라 도시와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다양하고 폭넓은 차원의 디자인 활동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기술혁신의 진전에 그치지 않고 선진기술과 전통기술의 융합이라는 국면도 생겨나 다양하고 우수한 디자인이 일본인의 현대 라이프스타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산업활동과 경제활성화라는 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현대 일본 사회의 역동성, 문화, 생활방식을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화적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디자인은 우리 생활에 뿌리내린 훌륭하고 인간적인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和」라는 전통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입장 등의 대립하는 항목을 융화시켜 보다 고차원적인 레벨로 통합하려는 정신입니다. 21세기 현대 일본 디자인이 활발해진 배경에는 제조업에서 다양한 가치와 입장을 통합·융합해가는 정신(=和정신)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본 전시에서는 제품디자인의 다양한 영역에서 훌륭한 디자인 약 160점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현대 일본 디자인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배경이 되는 사상을 소개합니다. 또한 현대 제품디자인에서 일본적인 향기를 선보입니다.

전시기간 2011. 2. 12(토)~3. 19(토) 10:00 ~ 18:00 (일 : 휴관)

- 전시장소 :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 공동주최 : 한국국제교류재단

〈부대행사〉

- 특 강 : 2. 12(토) ~ 3. 5(토) 매주 토요일 14:00
- 디자인토크 : 3. 12(토) 14:00





1 Okeanos Play, INDAF/2010



2 The Meditation, INDAF/2010



3 Face visualizer, Face Instrument/Performance/2008

ソウルスクウェア・メディアアクションバス  
J-Kコラボレーション・プロジェクト  
서울스퀘어 미디어 캔버스  
K-J 공동제작 프로젝트

한일 미디어아트 공동제작 프로젝트

한일 양국의 미디어 아티스트가 만나 공동 제작한 미디어 아트 작품이 서울역 맞은편 서울스퀘어 건물 전면 미디어 캔버스에 전시됩니다.

서울스퀘어는 미디어캔버스가 세로78m 가로99m 크기로 42,000개의 LED가 설치된 세계최대의 미디어캔버스입니다. 2009년 11월부터 세계적인 아티스트 '줄리언 오피'의 작품 표출을 시작으로 다양한 미디어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 공동제작 미디어아트 전시에서는 아카마쓰 마사유키(일본), 양민하(한국), 마나베 다이토(일본), 윈(한국)이 각각 그룹을 이루어 공동으로 작품을 제작합니다. 한일 양국의 예술적인 영감의 교류를 미디어아트로 표현하는 이번 전시는 2011년 2월 8일을 시작으로 3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전시기간	2011. 2. 8(화) ~ 3. 31(목)
전시시간	19:00 ~ 2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시장소 : 서울스퀘어 미디어 캔버스</li> <li>공동주최 : 가나아트센터</li> </ul>	

참가 아티스트



1 아카마쓰 마사유키

일본의 국립정보과학예술 대학원(IAMAS) 교수. 음악, 비디오 아트, 네트워킹을 사용해 예술작품과 관객, 작품의 자율성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작품을 제작한다. 최근에는 휴대전화와 그것의 사적, 사회적 영향의 표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Sekai Camera》(2008), 《Snowflakes》(2008)를 포함한 30개 이상의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했다.



2 양민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아시아 디지털 아트 어워드, 캐논 디지털 크리에이터 콘테스트를 포함한 다수의 국제 디지털 아트 수상자이다. 그의 작품은 멀티미디어 아시아 태평양 베이징(2002), 의정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2003), 스페인 아르고 비엔날레(2007), 인천 국제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2009) 등에 초청 및 소개되었다.



3 마나베 다이토

웹디자인 회사 Rhizomatiks 이사. 전자 센서를 근육에 접착하고 디제잉을 하는 퍼포먼스 Electric Stimulus to Face라는 작품은 유튜브(YouTube)에서 한 달에 백만 번 이상 조회되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Ars 일렉트로니카 센터의 오프닝에서 Zachary Lieberman의 Yes Yes No 콜라보레이션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다수의 국제 페스티벌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4 윈

김민선, 최문선 두 명으로 구성된 미디어 아트 그룹. 대도시 속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으며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스퀘어 등 다양한 곳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윈의 작품들은 대중 운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원천, 여론의 움직임, 공공 요소의 관찰이라는 테마를 핵심 주제로 보여주고 있다.



JAPAN FOUNDATION



日韓伝統音楽交流演奏会 和  
 韓日 전통음악 교류 연주회 와(和)

한일전통음악교류연주회 와(和)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악기로 한국의 가야금(伽倻琴)에 비견되는 고토, 세로로 부는 대금이라 할 수 있는 샤쿠하치. 이 두 일본전통악기가 앙상블을 이뤄 연주하는 일본의 전통음악 공연. 새해를 맞이하며 일본전통음악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국립국악원 지도위원이자 금율악회 대표인 거문고 연주가 이세환 씨, 그리고 장구연주가 서정곤 씨와의 협연도 마련돼 있습니다.

일시	2011. 1. 15(토) 15: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프로그램〉	1 흘러가는 꽃(流れ行く花) - 고토(箏), 샤쿠하치(尺八) 2 멀리서 들려오는 사슴 울음소리(鹿の遠音) - 샤쿠하치(尺八) 3 송죽매(松竹梅) - 고토(箏), 사미센(三味線), 샤쿠하치(尺八) 4 한일전통음악교류연주 「와(和)」 - 샤쿠하치(尺八), 거문고, 장구 5 홋카이도민요시라베(北海道民謡調) - 고토(箏), 샤쿠하치(尺八)	
〈출연진〉	한국 - 이세환(거문고) 서정곤(장구)	일본 - 도미모토 세이에이(고토) 요시오카 류켄(샤쿠하치) 외 다수



● **아마구치 도모**  
일본 최고의 폐품타악기 연주자  
폐기 용품에 새 생명을 불어 넣는 타악기 연주자  
'음악 = 소리를 즐기는 것'을 모토로 독자적인 퍼포먼스 전개, 일본폐품 타악기협회 회장  
어쩌다 보니 사진가



● **TICOBO**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폭넓은 연령층을 확보하고 있는 신감각 퍼포먼스 연주 집단



● **노리단**  
「버려진 것을 되살린다. 하고 싶은 일로 세상을 바꾼다」를 모토로 신 개념 극장공연과 거리 공연 전개



公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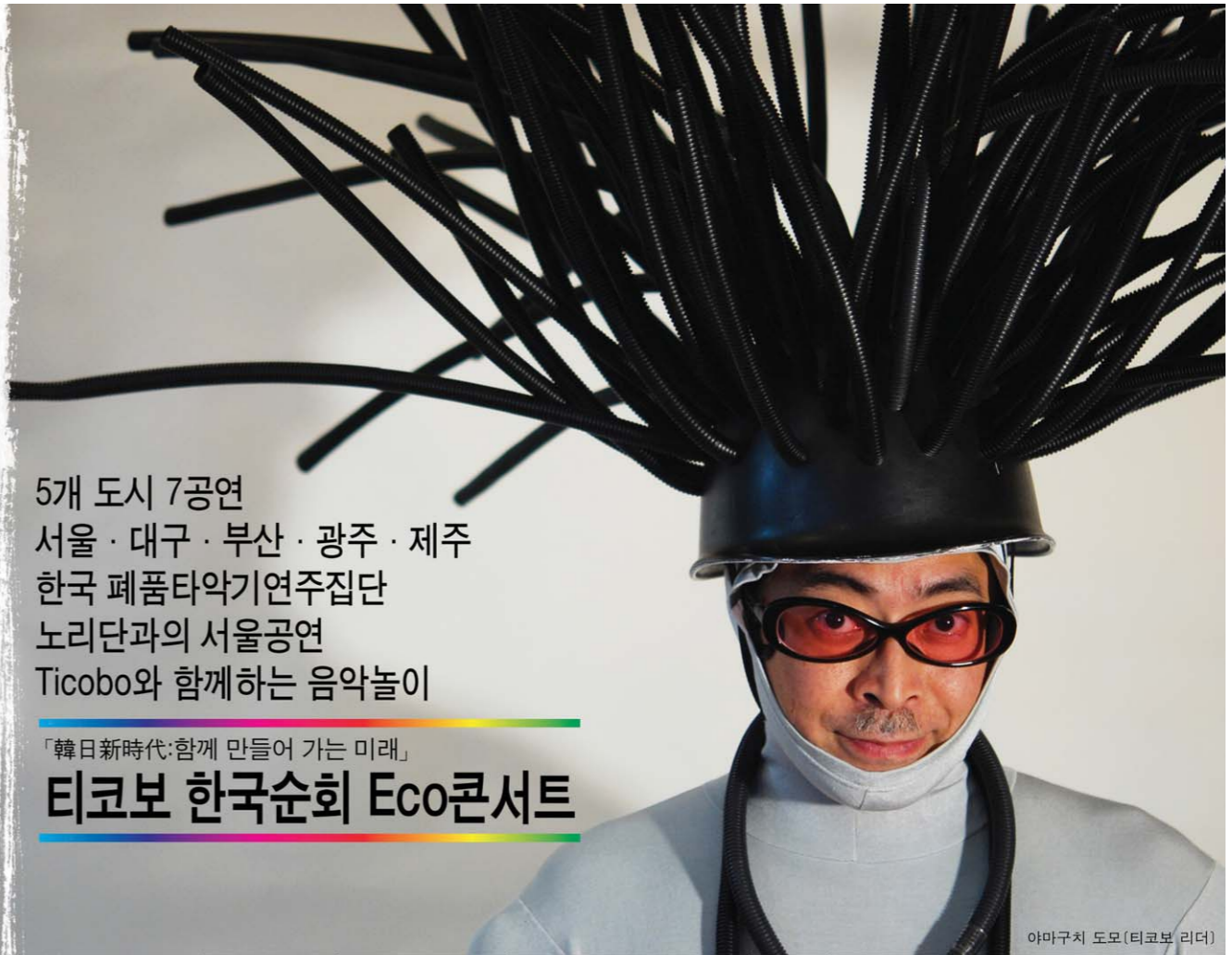
티코보 한국순회 Eco 콘서트

전통과 현대, 자연과 과학기술, 다문화, 복지,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한일 공통의 과제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풀어 가는 일본과 미래를 향한 한일의 공동작업을 소개하는 일환으로서 일본 폐품타악기연주의 대명사, 그룹 [TICOBO]와 한국 폐품연주단 [노리단]의 Eco 콘서트가 서울공연을 시작으로 부산, 제주도 등, 지방도시를 순회합니다.

- 한일 폐품타악기연주자 협연
- 세계의 공통과제, 환경문제를 악기로 해결

일 정	2011. 2. 8(화) ~ 2. 16(수)
■ 서울 공연	1 서울송전초등학교 : 2월 8일(화) 10:30
	2 구로아트밸리 : 2월 9일(수) 19:30 - [일본 티코보 & 한국 노리단 조인트 콘서트-Eco음악열차 구로로]
공동주최 : 노리단, 구로문화재단,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 대구 공연	대구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2월 11일(금) 11:00
공동주최 :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 부산 공연	신세계 센텀시티, 2월 12일(토) 16:00
공동주최 : 신세계 센텀시티,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 광주 공연	1 농성초등학교 : 2월 14일(월) 10:30
	2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 2월 14일(월) 15:00
공동주최 :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 제주 공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월 16일(수) 19:00
공동주최 : 제주주일본국총영사관	

ティコボ韓国巡回 Ecoコンサート



5개 도시 7공연  
서울 · 대구 · 부산 · 광주 · 제주  
한국 폐품타악기연주집단  
노리단과의 서울공연  
Ticobo와 함께하는 음악놀이

「韓日新時代: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  
**티코보 한국순회 Eco콘서트**

아마구치 도모 (티코보 리더)

# Ticobo

## 잡동사니 음악회

폐 품 타 악 기 연 주 집 단  
일본에서 온 Ticobo 한국 유랑 공연!

세상에 모든 물건은 **자신의 소리**가 있다?

세상에 **하나뿐인 악기**로 잠든 귀를 깨우자!!





한일전통가무악축제

100년이라는 역사를 뒤로 하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양국의 전통예능의 젊은인재를 중심으로 '합동연주' 공연을 기획하였습니다.

제1부와 제2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전통음악 및 무용을 선보이며, 제3부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즉흥연주기법인 '시나위'로 양국에 전래되는 대표적인 선율을 한일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하는 사상 최초의 합동 공연이 펼쳐집니다. 출연자 대부분이 앞으로 그 활약이 기대되는 20~40대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되었으며, 한일 전통예능에서 비교적 교류가 적었던 이 세대들이 이번 공연을 통하여 미래를 향한 교류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한국출연진



이영 윤재호 김기동 이정필 박혜신 김현숙

일본출연진



나카무라 카즈타로 이마후지 히사유키 이마후지 초타쓰로 요네카와 토시코 가타다 신주로

프로그램

제 1 부

한국음악: 우조초수대엽, 우락, 태평가  
일본음악: 아키노이로쿠사  
한국무용: 학처용무

제 2 부

일본무용: 사기무스메  
(안무: 후지마칸주로)

제 3 부

한일합동공연: 야치요지시, 염불도드리

일 정	2011.2.22(화)~ 2.25(금)
■ 서울공연	· 시 기: 2월22일(화), 23일(수) 19:30
	· 공연장: 국립국악원
	· 주 최: 국립국악원, 일본국제교류기금
	·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주한일본대사관공보문화원
· 협 력: 公益財団法人 新日鉄文化財団	
■ 부산공연	· 시 기: 2월25일(금) 19:30
	· 공연장: 국립부산국악원
	· 주 최: 국립국악원, 일본국제교류기금
	·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 출 연: 국립부산국악원단원	
· 협 력: 公益財団法人 新日鉄文化財団	

日韓傳統歌舞樂祭  
한일전통가무악축제



(김병오의 가곡)





〈신국립극장 「야끼니꾸드래곤」 2008년 공연 촬영 : 谷古宇正彦〉



### 야끼니꾸드래곤 공연

2011년 『야끼니꾸드래곤』 그 가족들, 그 마을에 살던 사람과 다시 만나는데...  
 2008년 연극상을 휩쓸며 일본과 한국 관객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야끼니꾸드래곤』이 2011년 이른 봄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일본 신국립극장은 2002년 도쿄·서울, 05년 도쿄·일본전국·서울에서 상연된 『강건너 저편에』에 이어, 2008년에는 개장 20주년을 맞이한 예술의전당과 『야끼니꾸드래곤』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상연하였습니다.  
 『야끼니꾸드래곤』은 곱창집을 무대로 재일한국인 가족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현재, 과거, 미래를 음악과 함께 재미있고도 슬프게 그려냈습니다. 재일한국인 정의신만이 그려 낼 수 있는 세계, 그야말로 한일교류에 걸맞는 작품으로 일본과 한국에서 호평을 얻은 작품이 다시 상연되는 것이니만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곱창집의 큰 역사를 그리고 싶다』(연출: 정의신)

일 정	2011. 3. 9(수) ~ 3. 20(일)
시 간	19:30(화~금) 14:00, 19:00(토) 15:00(일)
장 소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주 최	예술의전당
공동주최	(재)신국립극장 운영재단, 일본국제교류기금
제 작	예술의전당, (재)신국립극장 운영재단
후 원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 [각본·연출]정의신



93년에 『더 테라야마』로 제38회 기시다 쿠니오 희곡상 수상

영화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로 마이니치 영화콩쿠르 각본상, 기네마순보 각본상 수상, 98년 『사랑을 바라는 사람』으로 기네마순보 각본상, 일본아카데미상 최우수 각본상, 제1회 기쿠시마 류조상, 아시아 태평양영화제 최우수각본상 등, 수많은 상 수상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 ©KYOWA KANKO Co., Ltd.〉



〈©2009 「카무이 외전」 제작위원회〉

한일영화제 日韓映画祭



한일영화제

한일공동제작 작품 및 공동 출연 작품, 한일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한국에 집중 소개하는 영화제를 개최하여 양국의 영상분야 교류 및 협력을 가일층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 정 2011. 3. 10(목) ~ 16(수)

- 장 소 : 아트하우스 모모(이화여자대학교 ECC)
- 상영 예정작 : 약 25편
- 부대행사 : 한일 영화인, 감독들의 대담 · 강연

• 공동주최 : (주)영화사 백두대간

프로그램

※ 상영작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일 협연/합작] 미 개봉 신작 or 최신 개봉작

- 1 카무이 외전 (2009) \*개막작  
감독 : 최양일, 주연 : 마쓰야마 겐이치, 고유키
- 2 카멜리아 (2010) 감독 : 유키사다 이사오, 장준환
- 3 신씨, 탄광촌의 세레나데 (2010)  
감독 : 히라야마 히데유키, 주연 : 고유키
- 4 엄마 시집보내기 (2010)  
감독 : 오미호, 주연 : 미야자키 아오이

# 한국/한국인을 배경으로 한 작품

- 1 윤의 거리 (1989)  
감독 : 김우선 \*한국 프리미어 상영
- 2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 (1993)  
감독 : 최양일, 주연 : 기시타니 고로
- 3 진흙강 (1981)  
감독 : 오구리 고헤, 주연 : 후지타 유미코
- 4 작은 오빠 (1956) 감독 : 이마무라 쇼헤

\* 코디네이터 : 정수완 (동국대학교 영상학부교수)



Live through it.

KAMUUI





**blastbeat**

● **블래스트비트 (blastbeat)란?**  
「음악×창업×사회공헌」에 도전하는 젊은 인재를 기르는 생생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으로 2003년에 아일랜드에서 설립, 현재 5개국, 통산 200곳 이상의 고교와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일 블래스트비트 프로젝트

일본국제교류기금은 2009년에 설립된 일본NPO법인 블래스트비트, 한국 사회적기업 노리단 청년네트워크팀과 협력하여,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른 한일의 대학생이 함께 진행하는 블래스트비트 프로그램, 국제협동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학생들이 한일 양국에서 음악회사(Ralapipo)를 설립하여 음악이벤트를 성사시키고, 그 수익의 25%이상을 자신들이 선택한 사회공헌사업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제로의 상태에서 하나의 사업을 일구는 창업체험을 통하여 학생들간의 강한 유대감 형성은 물론 글로벌시대의 공통과제를 안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살아 나갈 힘을 기르는 프로그램입니다.

#### 학생이 결성한 합동회사 Ralapipo로부터의 메시지



Ralapipo는 「음악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는 이념 아래, 한일 학생 11명(한국측 6명, 일본측 5명)으로 구성된 한일 합동회사입니다. 음악이벤트를 통한 수익의 25% 이상은 「한일」, 「동세대」, 「기회를 주다」라는 키워드에 맞는 기부처에 전달됩니다.

〈참가자〉	19세 ~ 23세로 구성된 한일 대학생(유학생 포함) 총 11명	
〈스케줄〉	10월	참가자모집, 선발
	11월	킵오프 합숙(일본·사이타마현)
	12월	제2회 합숙(한국·서울)
2010년	2월 13일(일)	Ralapipo 한국 라이브 공연(서울)
	2월 20일(일)	Ralapipo 일본 라이브 공연(도쿄)
	3월 19일(토)	성과보고 심포지엄(서울)
	3월 22일(화)	성과보고 심포지엄(도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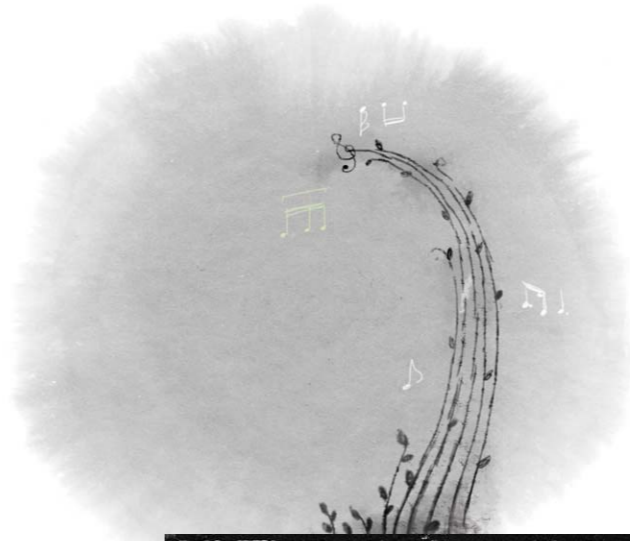
주관 : 사회적기업 노리단 청년네트워크팀, NPO법인 블래스트비트

2011 日本音楽情報センター(JMIC)シンポジウム  
2011 韓日音楽情報センター(JMIC) 심포지엄



2011 일본음악정보센터(JMIC) 심포지엄

대중문화 중에서 음악분야는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 콘텐츠와 함께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음악 중에서 아이돌 그룹 부분은 각 국의 청소년 문화 및 콘텐츠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 내 한국대중가요 열풍은 드라마로 시작한 한류 붐이 음악시장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아이돌 그룹의 성공 전략을 살펴보고 이러한 성공을 가능케한 전략과 이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본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아보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일본 아이돌 그룹의 한국 진출과 관련하여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 보고, 향후 양국의 문화 교류에 대한 상호 이해와 건전한 발전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2011. 2. 24(목) 15:00
테마	한일 아이돌 그룹의 성공 전략의 진단과 전망에 대해서
공동주최	재단법인 음악산업·문화진흥재단 (PROMIC)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구성	제 1 부 강연회 * 일본측 - NHK 프로듀서 이시하라 신 * 한국측 - 엠넷미디어 본부장 안석준
	제 2 부 토론 * 1부 강연자 2명 * 일본측 패널 - 유니버설 뮤직 합동회사 NAYUTAWAVE RECORDS 상무 겸 집행위원 마치다 스스무 * 한국측 패널 - MBC 프로듀서 신정수 * 한국측 패널 -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이사 정창환
사회 및 진행	소니 ATV 뮤직 퍼블리싱 대표 허영아



〈일본국제교류기금 보라나비 저작·번역상 역대 수상자와 함께〉



〈요시다 슈이치 작가 방한 사인회〉



### 한일출판교류 심포지엄

드라마나 영화, 음악 세계에서는 '한류'와 '일류'라는 말로 표현되듯 한일 양국이 서로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 분야로 눈을 돌려보면 일본 서적은 한국에서 소개되고 있으나 한국 서적이 일본에서 번역·출판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일본국제교류기금에서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국에서 출판·번역된 일본에 관한 우수한 서적을 선정, 표창하는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살려 한일 출판교류의 활성화에 위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현대소설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양국의 실무자와 연구자가 토론하는 장을 마련합니다.

일 시 2011. 3. 11(금) 14:00

- 테 마 : 한일문화교류를 위한 한국문학번역 활성화 방안
- 장 소 : 교보컨벤션홀(광화문)
- 공동주최 : 대한출판문화협회





〈외국인아동대상 적응지도교실 「장미교실」 (가니시)〉



### 한일다문화도시 세미나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이주노동과 국제결혼 등으로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역시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외국인과 어떻게 공생할 수 있는가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의 키워드로 [다문화공생]이라는 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은 2009년 일본에서 유럽의 "Intercultural City" 에 대한 다문화공생 관련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아시아의 다문화공생을 생각하는 장으로 한일의 지자체 및 연구자가 참가하는 심포지엄을 실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하여 한일 양국에서 동분야 관계자의 교류 및 정보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 시 2011. 3. 16(수) 13:00

- 장 소 :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장
- 공동주최 : 한국다문화학회

## 日韓多文化共生都市セミナー 한일다문화도시 세미나





〈페퍼톤스〉



〈the Indigo〉



〈아타케의 다리에 내리는 소나기〉



〈히메지조〉



〈팔달문〉

수원 JAPAN DAY

일시	2011. 3. 10(목)
장소	경기도 수원시
공동주최	수원화성박물관, 아주대학교, 재단법인 음악산업 문화진흥재단(PROMIC)

■ 무토 마사토시 주대한민국일본국 특명전권대사의 한일관계에 관한 강연회

일시	2011. 3. 10(목) 16:30 ~ 17:20
장소	아주대학교 울곡관 대강당

■ 한일우정콘서트 '인디고와 페퍼톤스와 함께'

일시	2011. 3. 10(목) 17:30 ~ 18:40
장소	아주대학교 울곡관 대강당
출연	일본 - 인디고(the Indigo) 한국 - 페퍼톤스

■ 유학 / JET / 워킹홀리데이 등 상담회

일시	2011. 3. 10(목) 14:00 ~ 16:40
장소	아주대학교 울곡관 영상회의실

■ 수원 JAPAN DAY 기념 특별전시회  
'한국과 일본의 세계유산 사진전' & '우키요에전'

전시기간	2011. 3. 10(목) ~ 2011. 3. 20(일)
전시장소	수원화성박물관 기획전시실



# 일본국제교류기금 (The Japan Foundation)에 대하여

일본국제교류기금은 21개국에 23곳의 거점과 일본 내 3개의 부속기관/지부를 두고 있으며, 이들 거점을 발판으로 아시아, 오세아니아,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전역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의 네트워크는 여러분이 여행했던 도시에,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거리 곳곳에 널리 퍼져있습니다.

사업분야로서는 <문화예술교류>, <해외일본어교육>, <일본연구/지적교류> 세 분야의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 1 문화예술교류

언어를 초월한 감동은 일본에 대한 흥미와 공감을 낳고, 이해를 촉진하는 원천이 됩니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은 그러한 원천을 만들어 내는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미술, 음악, 연극, 문학, 영화 등의 예술분야에서 음식, 패션 등의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문화예술분야의 글로벌 교류를 연출하며 각 분야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 해외일본어교육

해외 사람들에게 일본어를 알리는 것은 일본에 대한 친근감 증대와 이해의 폭을 세계로 넓히는 일로 이어집니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은 일본어교육의 세계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전세계 규모로 진행되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실시, 교재개발, 해외일본어강좌 전개, 일본어교육 전문가의 해외파견, 해외교사의 일본연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본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3 일본연구/지적교류

해외에서 일본연구를 지원하는 일, 먼 나라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일본에서 넓혀가는 일은 상호이해를 돈독히 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공동과제의 해결로 이어집니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은 심층적인 일본이해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일본연구자를 지원하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학자를 초빙하는 등, 학술과 연구를 통해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The Japan Foundation(Headquarters)  
4-4-1 Yotsuya, Shinjuku-ku, Tokyo, 160-0004  
Tel. 81-3-5369-6075 www.jpff.go.jp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일본국제교류기금이 19번째로 설치한 해외사무소로 문화정보실(도서관), 세미나실 등, 각종 문화시설을 갖추어 한국의 지식인, 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기금사업을 실시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